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의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0. 14.(수)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10월 14일(수)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 의원	윤성규	044-300-7182

[2026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의회 윤성규 의원, “야구리그 10년간 세금 징수 안 해” 체육회 관리 부실 강력 질타

- 야구리그 심판수당 원천징수 미이행 지적… 41개 정회원 종목단체 관리체계 개선 촉구
- 사무국장 활동비 연 1억 3천만 집행·지급기준표 불일치 지적… 세계대학경기대회 소극적 대응도 질타

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 윤성규 의원(조치원읍,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체육회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야구소프트볼협회의 장기간 세금 원천징수 미이행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세종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약 10년간 야구리그를 운영하면서 심판수당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를 실시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야구리그 수입은 약 3억 2,732만원이며, 심판·기록원 수당으로만 1억 3,404만원이 지출됐다.

특히 야구협회는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면서도 정규리그에서는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27년부

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장기간 이어졌음에도 바로잡지 못한 체육회의 감독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회원종목단체를 지도·지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관리해야 할 체육회가 기본적인 감독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야구협회뿐 아니라 41개 정회원 종목단체의 회계 운영과 세금 처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전무이사와 사무국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의 적정성과 종목단체 임원의 장기 연임 문제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체육회가 2025년 회원종목단체와 읍면동체육회 전무이사·사무국장 활동비로 1억 3,476만원을 집행하면서도 정액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활동이 없는 사무국장에게도 기본 활동비가 지급되고, 제출자료마다 지급기준이 다른 점, 기본지급액 적용 방식도 일관되지 않는 등 시민의 세금이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급 근거와 활동 실적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종목단체 임원의 장기 연임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임기 4년에 한 차례 연임으로 8년까지 재직할 수 있고, 이후에는 스포츠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정작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원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연임 여부를 심사할 기구조차 없는 상황에서 장기 재직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임기 제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체육

회의 무책임한 인사관리와 감독 부실을 비판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대하는 체육회의 안일한 준비 자세도 질타했다. 윤 의원은 대회 준비 상황에 대해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체육회 측의 답변을 지적하며, 국제대회를 앞두고도 자체적인 역할과 과제를 발굴하지 않은 채 외부의 지시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체육회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고 대회를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종목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이끌고 지역 체육 발전을 주도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되돌아보고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세종시체육회는 자체 감사팀을 구성했으며, 지적사항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